

마크 제닝스 박사, 마크, 강의 12, 마가복음 6:45-7:23, 물 위를 걸으심, 인간의 전통

© 2024 Mark Jenning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마가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마크 제닝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6:45-7:23에 대한 세션 12입니다. 물 위를 걷다, 인간의 전통.

저는 여기서 마가복음, 특히 마가복음 6장을 계속 다루면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겠습니다. 방금 마가복음 6장에서 본 것은 열두 제자를 보내는 것과 열두 사도가 어떻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요한 세례자의 참수에 대한 논의가 있은 후 열두 제자가 돌아오고, 열두 제자가 돌아오고, 5,000명을 먹이는 일을 준비하는 것인데, 예수께서는 예수님의 권위로 놀라운 일을 해 온 제자들에게 그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목자가 되도록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적인 문제,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지라는 문제 외의 어떤 측면에서도 그것에 대해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자 요한의 상황에 대해 인간적인 관심사로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인간적인 관심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목자로서 이 기적을 행하시고, 5,000명의 남자, 여자, 어린이를 기적으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제자들만이 그 기적을 보았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제자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자들 스스로 놀라운 일을 했고, 그들이 목격한 많은 일들의 목록에서 놀라운 것을 보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가장 유명한 기적 중 하나의 무대를 설정하고, 여기서 6장을 끝낼 것입니다. 그 뒤에 간단히 요약된 진술이 있는데,

그것은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때 핵심 아이디어는 이 사건과 다른 호수 위의 기적 사건, 즉 폭풍을 진정시킨 사건 사이에 몇 가지 유사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상황 모두 바람이 불고, 바람이 즉시 멎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계시, 그의 신성한 본성에 대한 자기 묘사도 있을 것입니다. 욥기 9:8 주석은 종종 여기서 하나님이 바다의 파도를 밟으신다고 언급합니다.

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5절에서 이걸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먹이를 준 후입니다.

예수께서는 즉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앞서 벳새다로 가라고 하셨고, 그 동안 그는 무리를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들을 남겨두고, 그는 기도하기 위해 산비탈로 올라가셨습니다(45, 46절). 아마도 여기서 지리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목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을 배에 태워 요르단 강 바로 동쪽에 있는 벳새다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 그들이 서쪽으로 가는 동안, 게네사렛과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는 동안 그들을 만날 것입니다. 질문 중 하나는 그들이 동쪽으로 가라고 지시받았지만, 예수께서는 서쪽으로 가는 배에서 그들을 만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가장 좋은 의미는 우리가 여기서 완전한 지시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벳새다로 가라고 지시한 다음, 특히 그가 도착하지 않으면 서쪽으로 건너기 시작하라고 지시합니다.

이게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해하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기로 선택했어요. 그는 기도하러 떠나기로 선택했어요.

이것은 다시 한번, 예수가 홀로 기도하러 간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홀로 기도하러 간 후, 저녁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배는 호수 한가운데에 있었고, 그는 땅에 혼자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동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지만 그는 배 근처에도 없습니다. 그는 땅 위에 혼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람이 거스르기 때문에 제자들이 노를 젓느라 애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밤 4경쯤에, 그는 호수 위를 걸으며 그들에게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예수께서 괴로움을 알아차리셨다는 분명한 감각을 얻습니다. 이것은 전복과 물이 차오르는 것에 대한 폭풍의 괴로움이 아니라, 그들이 이 호수를 건너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기로 읽힙니다. 여기 한밤중에, 밤의 네 번째 시계에, 그가 거기서 보는 것, 그리고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그가 한밤중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밝은 달빛 때문일까요? 초자연적인 시력 때문일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나가서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욥기 9:8, 이사야 43:16, 시편 77:19, 물 위를 걷는 신의 언어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이야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광야에서 먹이를 먹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3:18의 언어를 볼 것입니다. 조금 후에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바다를 건너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 위에서 바다를 건널 수 없었습니다. 하느님은 물을 갈라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그들은 땅에서만 걸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그가 건너가기 위해 물을 갈라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파도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가 가라앉아야 하는 중력의 법칙은 여기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 즉 물 위를 걷는 일을 합니다.

이제, 용어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는 바람이 그들에게 불리해서 노를 젓는 그들을 보고 그들에게 나갑니다. 하지만 마가는 48절 끝에서 그가 그들을 지나가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글쎄요, 어떻게 작동할까요? 그는 어떻게 그들을 지나가려고 했을까요? 그들의 힘겨움에 맞춰서, 나는 그들에게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지나가려고 한다는 표현이 마가가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신성한 정체성 메시지를 나타내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나가셨던 출애굽기 3장 18절을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나가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 지나가는 언어가 인간의 지각을 지나가는 신의 모습을 포착하는데 사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것에 대한 힌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의해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가 호수 위를 걷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가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의 유령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환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남자가 어떻게 걸어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내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를 보고 무서워서 소리쳤습니다.

다시, 이 공포의 모티브가 등장합니다. 그는 즉시 그들에게 말하며, 용기를 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나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것은 나 언어입니다. 그 언어의 그리스어는 ego eimi 입니다 .

그 그리스어는 가장 올바르게 번역될 수 있는 것은 '나' 이지만, '나는 존재한다' 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만약 후자라면, '나는

존재한다’, 그것이 선호하는 표현 방식이라면, 글썄요, 그것은 출애굽기 3장과 신의 신적 이름에 대한 계시인 ‘나는 존재하는 자이다’를 바로 떠올리게 합니다. 이제 그것은 요점을 과장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요한 복음을 연구하고 있다면, 그 요점을 과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요한은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제가 여기서 너무 많은 것을 읽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거든요.

일반적으로 두려움은 신의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반응과 연관됩니다. 하지만 물 위를 걷는 것에서 다른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인, 지나가는 것조차도, 적어도 그에 대한 힌트를 보지 않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에 대한 미묘하거나 메아리가 언급되는 것을 보지 않는 것은 어렵습니다.

흥미롭게 도, 그의 걱정은 그들이 바람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배에 올랐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람이 멎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멈췄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을 때와 비슷한 즉각적인 멈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학자들은 계시를 위한 투쟁을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도록 조정하신 의도적인 바람의 설계가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거기에 없고, 저는 이것이 단순히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거기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접근 방식을 취하면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8장에 본격적으로 접근하면서, 그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그가 들어가고 바람이 멎은 후에, 51절에서 제자들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주목하세요? 그들은 완전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빵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굳어졌습니다. 그 표현을 주목하세요.

그들은 완전히 놀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군중과 연관시키는 특징입니다. 군중이 기적적인 것을 보면, 그들은 놀랐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군중과 조금 더 일치시키는 특징인 듯합니다. 사실, 그것을 강화하는 것은 놀라움이 빵에 대한 이해와 대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빵이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 모세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했다면,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를 가진 자, 오실 분, 기대되는 종말론적 선지자, 메시아적 만찬을 전달하고자 했다면.

만약 빵과 빵의 공급이 이 모든 것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들은 그것을 놓쳤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에 놀랐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는 데 할 수 있는 일에 놀랐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들은 상징주의와 목자와의 연결, 그리고 그것이 가리키는 바에 대한 생각에서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완악한 마음을 바리새인과 마음이 완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연관시켰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거나 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제자들은 귀신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로 일을 할 수 있었던 동일한 집단으로, 같은 메시지를 가르치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마가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에서 군중과 바리새인들과 더 가깝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달하고, 보여주는 것보다요.

그들의 예수에 대한 이해가 바리새인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여전히 숨겨진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굳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물에 대한 이해가 인간의 구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범주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균중처럼 놀랐지만, 아직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했다고 생각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이 딱딱한 언어, 즉 엑소더스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구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먹고, 광야를 헤매고,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6장은 정말 간략하지만 요약된 진술로 끝납니다. 그들이 건너갔을 때, 그들은 게네사렛에 상륙하여 거기에 정박했습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온 지방을 돌아다니며 병자들을 매트에 눕혀서 그가 있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마을과 도시와 시골에, 그들은 병자들을 시장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그의 옷자락 끝이라도 만져 달라고 간청했고, 그들을 만진 사람은 모두 나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받아온 것처럼, 특정 행사나 특정 장소에서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요약 진술을 얻습니다. . 좋아요,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장을 읽을 때, 우리는 방금 제자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 방금 인간의 전통에 대해 말씀하신 것, 방금 바리새인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 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장의 첫 번째 주요 에피소드는 갈등 에피소드로,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는 대립을 합니다. 예수는 구전 전통을 놓고 바리새인들과 대립합니다. . 이제, 이 에피소드와 이전 에피소드 사이에는 명확한 연관성이 없습니다. . 우리는 거기에 명확한 지리적 연관성이 없지만, 개념적으로는 예수와 바리새인들과의 상호작용에 관해 우리가 보아온 것과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군중과 함께 가는 곳마다, 치유가 있고 사람들이 오는 곳마다, 종종 도전하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니 어색하지 않습니다. 제가 연습을 조금 시작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 학자들 중 몇몇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서 그의 제자들 중 몇몇이 더럽고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괄호 안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며 손을 의식적으로 씻지 않고는 먹지 않습니다. 그들이 시장에서 왔을 때, 그들은 씻지 않고는 먹지 않으며, 잔, 주전자, 주전자를 씻는 것과 같은 다른 많은 전통을 지킵니다. 아마도 여기서 맥락을 설정하기 위해, 하나는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관련된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무언가를 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들은 그것에 대해 예수님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의식적으로 먹을 손을 준비하지 않고 먹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3~4절의 괄호 안의 주석은 흥미롭습니다. 첫째, 마가가 괄호 안의 주석을 제공하기 때문에 충분히 흥미롭습니다. 그는 독자에게 자신이 말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이것은 그의 청중이 이미 이해하지 못했거나 적어도 청중의 일부는 이 참조에 대한 즉각적인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는 바리새인들이 이 과정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주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이 장로들의 전통을 고수하면서 손을 의식적으로 씻지 않고는 먹지 않는다는 세부 사항의 정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에게 질문할 의식적 씻음은 구전 전통과 청결 상태에 대한 장로들의 가르침에 뿌리를 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씻지 않는 한 먹지 않고, 컵, 주전자, 주전자를 씻는 것과 같은 다른 많은 전통을 지킨다는 점까지 확장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전통, 이러한 종교적 관행의 철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 기구를 다루는 것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 모든 유대인에게 적용되도록 율법에서 제사장들에게 명령된 관찰을 본 이 아이디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 순결법의 확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잠시 바리새인들을 보지 못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사실 3장 이후로 현장에 없었고,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가지 사실은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이미 이러한 반대를 자리 매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이 무리,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더러운 행위, 즉 의식적 청결의 부족이 필요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출애굽기 30장과 40장, 레위기 20장의 신권적 요구를 확대함으로써 의식적 청결을 표적으로 삼았을 수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다가 이방 문화와 마주하는 일이 급격히 증가한 이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가 사용한 용어처럼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사이에 더 깊은 분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절에서 그것을 꺼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의 선생들은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대신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살지 않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질문에 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 면에서 장로들의 전통과 그 중요성에 대한 이 문제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율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진 구전 전통입니다. 선교사는 구전 전통을 토라를 둘러싼 율타리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모든 의미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그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주 하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으로 가서 대답합니다. 그는 이사야가 당신에 대해 옳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하여 예언한 것은 옳았다. 기록된 바와 같이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은 헛되이 나를 경배한다. 그들의 가르침은 사람들이 가르친 규칙이다.

여기서 지적할 점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제자들이 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행동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질문의 근거를 비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율법의 선생, 율법의 해석자들을 찾아, 이사야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정죄할 때 당신들에 대해 말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고, 경배했지만 참된 이유가 없었고, 그들의 가르침은 단순히 인간의 가르침, 인간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러니, 토라를 지키는 전문가, 전통의 중요성에 대한 전문가, 하나님과 율법과 그의 길에 대한 지속적인 진정한 헌신이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을 이 집단에게 그가 여기서 한 일을 주목하세요. 그는 이사야가 유배로 이어진 유배의 악당들,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했을 때, 사실 그는 당신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었습니다. 글썄요, 우리는 이것을 마가복음 전체에서 볼 수 있는데, 예수께서 현재의 종교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불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의 불순종한 유대인들의 가족에 두셨고, 그는 여기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위선자의 언어도 흥미롭습니다. 그는 그들을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 집단에 대해 흔히 하시는 모욕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은 종종 위선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위선자라는 용어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이런 의미에서 유래하고, 어떤 의미는 이런 의미로 이어집니다.

고대 그리스어와 그 이전의 그리스어에 있었고, 이것은 배우를 지칭하는 용어였을 것입니다. 배우가 페르소나를 입고 박수갈채를 받고, 오락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매우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연극에서, 그것은 당신 위선자들이고, 그는 기도하든 금식하든 자선을

베푸든 다른 종교를 거론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위선자라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칭찬과 찬사로 보상을 받지만, 하늘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배우의 모티프이고, 페르소나에 대한 대중의 찬사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가 “위선자들아, 너희는 신의 종교적 가르침을 제시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너희의 헌신이 신성한 관심사가 아니라 인간적이고 남성적인 관심사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8절은 심지어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는 아직 그 관행을 옹호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는 그 행동,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예수가 귀신들려 베엘제불과 결탁했다는 비난이 성령을 모독할 정도로 완고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구전 전통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 질문을 하는 것은 그들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는 예를 들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제쳐놓는 훌륭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는 방금 한 비난을 정당화하는 명확한 주장을 유언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어가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방식, 이사야가 옳았다고 말하는 정확한 구절, 그 단어는 너희가 제쳐놓는 훌륭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용어의 메아리도 조금 있습니다. 모세가 말했으니, 여기서 그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비난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했으니,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십계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의 기본 계명 중 하나인 다섯 번째 계명을 제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떤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당신이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서 받았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은 코빈이고, 그것은 신에게 바친 선물이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가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이 코빈 비판에 대해 조금 생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전하고 있는 그런 관습은 레위기 27, 28장, 민수기 18, 14장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선을 하나님께 바치고, 주님의 목적을 위해 무언가를 따로 떼어놓는다는 이 아이디어. 이것은 실제로 이 코빈 아이디어에 대한 판결과 규정에 대한 거대한 토론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 코빈은 어느 정도 오늘날 우리가 연기된 기부라고 부르는 것이 되었는데, 즉, 기관에 무언가를 주지만 죽을 때까지 그것을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권리를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지역 대학에 재산을 줄 수 있지만, 저는 그 재산에서 살면서 그 재산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죽으면 대학이 그 재산을 받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연기된 기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코빈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점은 코빈이라는 이 아이디어, 즉 봉사와 성전을 위해 무언가를 따로 떼어놓는 사람이 이제는 부모가 나이가 들면서 그들을 돌볼 의무를 제쳐두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커니즘이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실제로 강화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그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자신의 재산이나 재산의 일부를 코빈에게 선언하면, 즉 그것이 사원에 속한다는

의미라면, 그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그것을 사용할 수 없지만, 여전히 자신을 위해 이익을 유지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생계를 유지할 수 없거나 숙박이 필요하거나 일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아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을 받아 부모에게 “저는 도울 수 없습니다. 이 재산은 신의 소유입니다. 저는 여전히 사용하고 소유할 권리를 유지할 수 있지만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재산이 코르반으로 제공되자 종교 지도자들은 코르반을 깨뜨리는 것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요세푸스에 따르면 코르반을 깨뜨리려면 실제로 무언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코르반 같은 것을 바치면, 그것을 되찾으려면 돈을 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돌보는 것보다 더 큰 존경의 표시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 해석에 뿌리를 둔 이 코르반 규칙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코르반을 재정적으로 이롭지 않을 수 있는 다른 의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위선에 대한 매우 큰 예가 되어서 레위기 27장, 민수기 18장에 나오는 특정 재물을 주님께 바치는 관습은 십계명을 파기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하고, 이와 비슷한 일을 많이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군중을 불러서, 모두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그가 방금 코르반의 행위를 비판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말합니다, 내 말을 들어라, 모두들, 이것을 이해하라. 사람 밖에 있는 것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를 더럽힐 수 없다. 오히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이제 이것은 먹는 사람의 손이 더럽다는 비난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것, 바리새인과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했던 것은 제자들이 손으로 더럽고 더러운 관습을 먹음으로써 청결함의 측면에서 스스로를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들은 이제 전통을 어김으로써 더럽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위선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깨끗함과 더러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동기를 지적하신 후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관행이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는 관행이 아닌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음식이 오염되었을 수도 있고, 먹는 과정에서 오염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에 사로잡혀 있지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드러냅니다. 바리새인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들의 더러움을 드러내는데, 제자들이 손을 씻든 안 씻든, 제자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코빈의 이 관행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군중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자,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이 비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지루합니까? 저는 그 대답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지루합니까, 그는 묻습니다.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것은 그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뱃속으로 들어간 다음 그의 몸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괄호 안의 주석은 흥미로운데, 제 생각에 마가는 여러 면에서 초기 교회가 가르친 것과 일치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외삽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수께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신 의도가 아니라, 만약 그것이 도구와 손 씻기가 아니라면,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더럽게 만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제로 음식 자체의 내용, 정체성이라는 합리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가 자신의 환상에서 가르쳤고 바울이 가르쳤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우리는 마가가 바울과 베드로의 동료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저자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베드로가 말하는 것과 바울이 말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사이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여기서 코셔법에 대해 직접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확실히 적용됩니다.

그는 계속해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 당신도 알다시피,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성적 부도덕,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음란, 시기, 중상모략, 오만함, 어리석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은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물론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 사이에 있었던 순결법에 대한 논란의 연장선이며,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무엇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지에 대한 논란입니다. 예수의 순결은 정화 행위와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마음과 내면에 관한 것이라면, 예수가 깨끗하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으실 때, 그는 구전 전통의 외부적인 규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마음의 실제적 변화를 염두에 두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시로페니키아 여인과 함께 마가복음에서 예수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8장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마크 제닝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6:45-7:23에 대한 12번째 세션입니다. 물 위를 걷다, 인간의 전통.